

부문별 주요 기사

— 대내경제	93
— 농업 및 식량	97
— 대외경제	100
— 남북경협	105

부문별 주요 기사(4.26~5.27)

대내경제	93
북, 건설 자재 대량수입	93
노동절 맞아 ‘강성대국 건설’ 분발 촉구	93
북한 채권가격 올들어 30% 상승	94
북 올해 3월 강수량, 1974년래 최저	94
제14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94
북 장마당, 달러화 쇠퇴, 인민폐 사용	95
북 장마당, 식량가격 연일 하락	95
북, 휴대전화 가입자 50만명 돌파	96
농업 및 식량	97
UNICEF, 대북지원 예산 70% 늘려	97
UNDP, 대북지원 사업 농촌 지역 집중	97
북, 비료지원 부족으로 모내기 차질	98
러, 북에 곡물 5만톤 지원계획	98
WFP, “북한 당국 배급량 하루 190g으로 감소”	98
미 대북식량지원 평가단, 평양에서 식량조사 착수	99
대외경제	100
중국 방문 북 주민, 1분기 3만명 육박	100
북, 올 들어 국제특허 출원 실적 ‘0건’	100
북한주민 방미 급증	101
1분기 북중교역 사상 최대	101
신암록강대교 건설 공사 시작	102
북 칠보산-중 룡징 관광코스 개통	102
올 들어 처음 발생한 3월 북미교역, 모두 구호물품	102
유엔, ‘대북제재 보고서’ 채택 실패	103

황금평-라선특구 착공식 돌연 취소	103
김정일 방중 행로	104
남북경협	105
통일부, 5.24 조치 이후 종교인 방북 첫 승인	105
북,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설하여 독자적으로 주관행사	105
북, 춘궁기 맞아 한국 민간단체들에 식량 지원 요청	105
개성공단 체류인원 600명대로 확대	106
북, 한국 상품 유입 단속 대폭 강화	106
통일부, 북한 취약계층 지원 5건 추가 허용	107
‘남북 백두산 토론회’ 북한측 묵묵부답으로 무산	107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 5월중 실시	108
통일부, “북한, 책임 있는 조치 없으면 5.24조치 지속”	108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탈북자 대북 송금 승인 대상”	108

대내경제

북, 건설 자재 대량수입

4월 29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최근 들어 중국에서 철강과 시멘트 등 건축 자재를 대량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단둥 해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북한의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 “10톤급 이상 대형 화물 트럭이 하루 평균 200대, 많을 때는 400대까지 신의주로 들어가고 있다” 며, 대북 무역상도 이는 ‘전례 없는 일’ 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언했던 ‘강성대국 건설의 해’ 를 1년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부상한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해온 ‘평양 10만호 사업’ 에 의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4.29).

노동절 맞아 ‘강성대국 건설’ 분발 촉구

5월 1일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이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신문」 1면 사설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분발을 촉구하며 공업과 농업 발전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당부했다고 보도.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개최된 남북노동자통일대회에서 남북 노동단체가 합의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노동자들이 평화수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전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당초 조선직업총동맹과 함께 남북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지만, 통일부가 개성에서의 실무접촉을 허가하지 않아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연합뉴스」, 5.1).

북한 채권가격 올들어 30% 상승

5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채권의 거래를 대행하는 영국 금융중개회사 '이그조틱스'의 말을 인용해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이 지난해 폭락의 충격에서 벗어나 올해 들어서만 30% 가까이 올랐다고 보도. 이 회사는 북한 채권가가 2009년 역대 최저치인 6센트까지 떨어진 후, 지난해 10센트를 유지하며 고전을 면치 못한 것과 달리 올해 초부터 꾸준히 올라 1월에는 11센트, 3월에는 13센트, 그리고 5월 현재 14센트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이 회사 수석 경제분석가 스투어트 컬버하우스는 북한 채권의 상승세가 꼭 정치적인 화해 분위기 덕분이라고 단정하긴 힘들지만 개방, 통일 등 정치적 변화가 오면 분명히 수익성이 오를 것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자유아시아방송(RFA)」, 5.10).

북 올해 3월 강수량, 1974년래 최저

5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월 한 달 간 북한에 내린 강수량은 4.8mm로 평년(26.7mm) 대비 18%에 그쳐, 1973년 3월 강수량(평년 대비 11%) 다음으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 한국기상청 한반도기상기후팀에 따르면 북한의 선봉, 청진, 구성, 남포, 용연, 해주 등 6개 지역은 이 기간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반면, 원산(20.5mm), 삼지연(17mm), 함흥(14mm), 풍산(10.8mm), 평강(10.1mm) 등 5개 도시는 한 달 동안 10mm 이상의 비가 내려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조금 낫지만, 전반적으로 가뭄이 심각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또 「조선중앙TV」가 지난 1~3월까지 집계·보도한 가뭄일수를 살펴보면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의 대부분이 89일, 서해안 지방이 3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자유아시아방송(RFA)」, 5.13).

제14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개막

5월 16일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역박람회 격인 제14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16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보도. 이번 전람회에는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몽골, 시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프랑스, 폴란드, 대만의 기업들이 참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16).

북 장마당, 달러화 쇠퇴, 인민폐 사용

5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장마당에서 외화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가장 많이 유통되던 미 달러화가 점차 중국 인민폐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 북한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을 찾는 중국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들이 사용한 인민폐가 곧바로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과 달리 달리는 잔돈이 귀해 거스름돈을 주고받는데 곤란해 장마당에서도 인민폐를 선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또 소식통들은 중국과 가까운 신의주를 비롯한 혜산, 회령, 만포 등지는 물론, 최근엔 평양 등 내륙도시에까지도 인민폐의 유통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북한 화폐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주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의 뿌리까지 흔들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5.17).

북 장마당, 식량가격 연일 하락

5월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4월 중순부터 약간 상승세를 보이던 장마당 식량가격이 최근 들어 연일 하락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와는 달리 올해 아사자는 없을 것이라고 보도.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여유식량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모두 농사일에 집중하다보니 쌀을 팔러 장마당에 다닐 새가 없었으나 지금은 씨 불임이 끝났기 때문에 저축했던 식량들을 풀면서 “5월 초에 2천원선까지 올랐던 쌀값이 1600원까지 내려갔다” 면서 “강냉이 가격도 600원대로 하락했다” 고 밝혔으며, 올해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사자들은 없으며 “이제는 산나물도 나고 좁잎이면 햇보리도 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사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그러나 식량이 절대 부족해 풀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는 소식통들의 말을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5.18).

북, 휴대전화 가입자 50만명 돌파

5월 19일 「미국의소리(VOA)」는 오라스콤 텔레콤이 18일 발표한 ‘2011년 1분기 실적보고서’ 를 통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이 시작된 지 2년 3개월 만에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3월 말 현재 53만명(53만5천133명)을 넘었다고 보도. 이 수치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0% 증가한 것으로, 고려링크 역시 1분기 매출액이 2천5백만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185% 늘고, 세전 영업이익은 2천250만달러로 마진율이 87%에 달한다고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의소리(VOA)」는 전함(「미국의소리(VOA)」, 5.19).

농업 및 식량

UNICEF, 대북지원 예산 70% 늘려

4월 28일 「미국의소리(VOA)」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최근 발표한 ‘2011 인도의 활동보고서 개정판’에 따르면 지난 2월 북한에서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식량과 영양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의 식량안보에 중대한 변화가 감지돼 올해 대북 사업 규모를 2천40만달러로 확대한다고 보도. 이는 지난 3월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올해 대북 사업 예산으로 발표한 1천2백만달러 보다 41% 늘어난 것으로 수혜 대상도 440만명에서 630만명의 어린이와 여성으로 확대되며, 영양 지원과는 별도로 수 십 년간 지속된 식량난에 따른 공중보건 문제 해결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는 전함. 유엔아동기금(UNICEF)은 특히 현 시점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5살 미만 북한 어린이 8만8천4백명이 경증 영양실조에서 중증 영양실조로 증세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함(「미국의소리(VOA)」, 4.28).

UNDP, 대북지원 사업 농촌 지역 집중

4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올해 북한의 심각한 식량사정을 우려해 강원도 안변군, 황해남도 장연군, 평안남도 은산군과 강세군 지역에서 ‘농촌지역 에너지 발전 사업’ 등 농촌 사업을 중점으로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지난해 7월 재개된 이 사업은 대북사업의 총 예산인 약 1천310만달러 중 565만달러를 투입해 북한 내 농촌 지역의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협동 농장들을 통해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는 물론 생물에너지, 수력에너지, 태양열에너지 등 대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유엔개발계획(UNDP)의 또 다른 농촌 지원 사업으로 탈곡기 등 농기구와 저장 시설을 재정비하는 ‘수확 후 손실 감소 사업’ 과 이와

관련한 북한의 농업 관련 기술자 대표단을 중국, 인도, 필리핀으로 연수를 보내는 사업도 포함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4.28).

북, 비료지원 부족으로 모내기 차질

5월 12일 「미국의소리(VOA)」는 최근 평안남도를 비롯해 북한 전역에서 모내기가 시작됐지만 남쪽에서 지원받던 비료와 못자리용 비닐박막 공급이 끊겼으며, 특히 비료 부족으로 모내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3월 중 중국으로부터 총2만5천톤의 비료를 수입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수입량에 비해 62%에 불과하다고 「미국의소리(VOA)」는 덧붙임(「미국의소리(VOA)」, 5.12).

러, 북에 곡물 5만톤 지원계획

5월 20일 「연합뉴스」는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을 방문 중인 러시아 정보기관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북한에 곡물 5만톤을 지원하는 방안과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고 보도. 「인테르팍스통신」은 러시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하일 프라드코프 대외정보국 국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인도적 지원, 경제 프로젝트, 북핵에 관한 회담을 했으며, 남북한과 관련된 경제 프로젝트에는 남북한 간 철도 연결과 러시아에서 북한을 경유해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 파이프라인, 송전선 설치 등이 포함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곡물 5만톤 지원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20).g

WFP, “북한 당국 배급량 하루 190g으로 감소”

5월 24일 「미국의소리(VOA)」는 지난 11~18일까지 황해남북도를 방문해 분배 상황을 살펴 본마크스 프라이어 WFP 아시아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 당국이 공공배급제를 통해 분배하는 하루 식량이 400g에서 190g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도. 프라이어 대변인은 지방 당국자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5월 말까지는 식량 분배가 가능하지만, 6월부터는 분배에 필요한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

(VOA) 전함. 이미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3월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서 식량이 부족한 5월과 7월 사이에 공공배급제를 통해 분배할 식량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긴급 식량 지원을 계획했으나, 목표액의 15%에 해당하는 3천1백50만달러를 확보하는데 그쳤다고 「미국의소리(VOA)」는 덧붙임(「미국의소리(VOA)」, 5.24).

미 대북식량지원 평가단, 평양에서 식량조사 착수

5월 24일 「미국의소리(VOA)」는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대북식량지원 평가단을 이끌고 평양에 도착해 식량상황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 「조선중앙통신」도 미국의 평가단이 ‘북미 사이의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밝혔으며, 킹 특사와 평가단은 북한에 머물면서 북한의 식량 수요 평가를 위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북한 당국자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함. 킹 특사는 28일까지 평양에 머물면서 북한 외무성의 리근 미국국장과 당국자들을 만나 분배감시 문제 등을 협의하고, 식량 평가단은 다음 달 2일까지 북한에 남아서 자강도와 함경남도 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소리(VOA)」는 전함(「미국의소리(VOA)」, 5.24).

대외경제

중국 방문 북 주민, 1분기 3만명 육박

4월 26일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국가여유국의 통계를 인용해 올해 1분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2만8천6백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2만1천2백명보다 35% 늘어났다고 보도. 북한 주민의 중국 방문을 목적별로 보면 공장이나 식당 등 취업이 1만4천6백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회의 참석 또는 사업차 방문 6천명, 관광 7백명, 친지방문 1백명 이하, 방문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는 7천3백명으로, 연령별로는 45~65세가 1만3천8백명으로 가장 많았고 25~44세가 1만2천4백명으로 두 연령대를 합치면 전체의 90%를 넘으며, 이동 교통수단은 선박 1만1천백명, 비행기 6천7백명, 자동차 4천8백명, 기차 4천1백명, 도보 1천백명 순이라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함. 중국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탈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함(「미국의소리(VOA)」, 4.26).

북, 올 들어 국제특허 출원 실적 '0건'

4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북한이 연료를 아끼는 휘발유 엔진을 등록한 지난해 9월 이후 한차례도 국제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퍼브리신프 말리 언론 담당자는 같은 기간 한국은 2천8백여 건의 국제특허를 출원했으나, 북한은 1993년 지문 인식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처음으로 출원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2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해 올 들어 매월 평균 700건의 국제 특허를 출원하는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전함(「자유아시아방송(RFA)」, 4.27).

북한주민 방미 급증

4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국토안보부의 자료를 인용해 2011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129명이 넘는 북한 국적자가 미국을 방문했으며, 북미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적자의 방문은 지난해 같은 기간(59명) 보다 2배나 늘어났다고 보도. 이 기간 미국을 방문한 북한 국적자가 소지한 비자는 B1, B2, E1 그리고 F1이며, 이들은 관광, 학업, 투자를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로 모두 비이민비자이며, 특히 올해 1월~3월 사이 방문자는 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4명)에 비해 높은 수치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전함. 올해 들어 북한 국적자의 미국 방문 증가는 북미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됐음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지난 3월에는 12명의 북한 경제대표단, 2월에는 북한의 과학대표단 방문에 이어 5월에는 북한의 태권도 대표단의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4.28).

1분기 북중교역 사상 최대

5월 4일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해관통계를 인용해 올해 1분기 북중 교역액은 북한의 대중 수출 급증세로 사상 최대였던 2008년 1분기(4억9천1백만달러)의 2배에 달하는 9억7천2백만달러를 기록 한 가운데, 대중 수입액은 5억7천1백만달러로 지난해(3억5천9백만달러) 보다 59% 늘어나 1억7천만달러의 대 중국 무역적자를 기록 했다고 보도. 5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품 1위인 석탄의 수출액은 1억5천4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68만달러에 비해 무려 15배나 급증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최근 발표한 '1분기 북한의 대중 곡물 수입 동향' 을 인용해 곡물량이 3만9천톤(39,43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339톤)에 비해 약 5.6% 증가했으며, 특히 밀가루의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75% 증가했다고 전함. 또 이 보고서는 심각한 비료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1분기 대중 수입 화학비료량은 중국이 수출 관세 조정을 통해 비료 수출을 억제한 결과, 총2만5천400여톤(25,46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677톤)과 비교해 약 37% 줄었으나, 올해 1월의 비료 수입량(152톤)이 지난해 1월(1만6천 톤)의 100배 이상 급감한 것이 주목을 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5.6).

신압록강대교 건설 공사 시작

5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그동안 공사가 지연돼 실현여부를 두고 많은 역측을 불러온 북한과 중국을 잇는 새로운 다리 신압록강대교 건설이 착공식을 가진지 5개월 만에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도. 다리의 중국 측 끝단인 단둥 랑토투만 현지엔 대형 크레인 한 대와 20여명 정도로 보이는 건설인부들이 다리건설에 필요한 보조 시설물 설치작업을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건설 공사에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한편, 중국내 대북 관측통 말을 인용해 지금까지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중국 측이 많은 공을 들인데 반해 북한측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새로운 교량건설이 북한에 개방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북한 지도부의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5.5).

북 칠보산-중 룡징 관광코스 개통

5월 6일 「연합뉴스」는 「연변일보」를 인용해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룡징에서 북한 칠보산을 다녀오는 관광코스가 신설됐다고 보도. 「연변일보」는 지난달 30일 룡징시에서 룡징-칠보산 관광코스 선발대 출정식과 함께 칠보산 관광길이 열리면서 룡징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함. 북한 관광노선 다각화를 추진해온 연변주는 2008년부터 룡징-칠보산 관광코스 개통을 북한과 협의해왔는데 훈춘에서 북한 라선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순회하는 3국 무비자 관광이 지난달 26일 첫선을 보인 데 이어 룡징-칠보산 관광이 개통됨에 따라 북중 관광 교류가 활기를 띠 거라고 「연변일보」는 전망. 한편, 「압록강만보」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4년 만에 북한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난해 4월부터 단둥에서 북한 단체관광이 시작돼 지금까지 모두 10만명이 북한을 여행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5.6).

올 들어 처음 발생한 3월 북미교역, 모두 구호물품

5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상무부가 11일 발표한 '3월 국제 교역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3월 북미 간 교역액은 73만7천달러로 올해 들어 두 나라 간 처음 발생한 교역이며, 이 기간 교역품목은 모두 구호물자였다고 보도.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북미 간 교역액은 작년 3월(28만달러)과 비교할 때 2.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품목은 구호물자가 아닌 열매를 맺는 관목이 27만달러, 옥수수과 씨앗이 7천달러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상무부에 확인한 결과 총 교역액 중 7만달러 어치의 구호물자가 3월 중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출항했고, 66만7천달러 어치가 워싱턴주 시애틀을 각각 출항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호물자가 출항한 날짜와 구체적인 품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함. 지난 3월 미국과 북한의 교역 규모 순위는 108위였으며, 미국과 한국 간 교역 규모는 20위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덧붙였다(「자유아시아방송(RFA)」, 5.11).

유엔, '대북제재 보고서' 채택 실패

5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단의 '최종 보고서'를 위한 대북 제재와 관련한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기술 이전 및 무기 수출입 등을 논의했으나, 회원국들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다음달 초순 경 세부사항과 관련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보도.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단의 보고서를 공식 채택하기 위한 제안이 있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영국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이번 '최종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이 정기적으로 탄도 미사일 기술을 거래한 사실도 담고 있으며, 북한과 이란은 제 3국을 통해 유엔이 금지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거래했고 이는 북한의 고려항공과 이란의 '이란 에어' 항공사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덧붙였다(「자유아시아방송(RFA)」, 5.17).

황금평-라선특구 착공식 돌연 취소

5월 27일 「연합뉴스」는 이달 말 예정됐던 황금평과 라선특구 개발 착공식이 전격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소식통은 라선특구 착공식 취소는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착공식이 취소됐다”면서 “북한이 취소 요청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전했으며, 단둥의 소식통은 황금평 개발 착공식 취소에 대해 “백지화한 건 아니고 2, 3일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열리더라도 애초 계획됐던 것처럼 ‘큰 손님’들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그러나 황금평 개발 착공식에 참석하는 북한 측 인사들이 투숙할 것으로 알려진 단둥의 크라운호텔에 따르면 “28일 잡혔던 행사가 취소돼 이달 말 언젠든 투숙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덧붙임. 황금평과 라선

특구는 북한과 중국이 합작 개발하기로 한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북중 정상회담을 끝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귀국길에 오른 시점에 착공식이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5.27).

김정일 방중 행로

5월 27일 「연합뉴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행을 태운 특별열차가 오전 7시 30분께 단둥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귀국, 7박8일 간의 7번째 중국 방문을 마무리했다고 보도. 이하는 「연합뉴스」를 통해서 본 김 위원장의 방중 행로.

- 20일 특별열차로 투먼 통해 중국 입국 → 무단장 베이산 공원에서 ‘항일연군 기념탑’ 참배 → 하얼빈 무정차 통과 → 지린성 창충에서 이치 자동차 시찰 → 양저우 출발.
- 22일 저녁 8시 45분 장쑤성 양저우 도착. 2박3일 체류. 제팡자동차, 양저우 산업과학센터 등 3개 IT업체, 대형 할인매장, 난징의 판다전자 시찰.
- 24일 오후 3시 5분 난징역 출발, 베이징행.
- 25일 오전 10시 베이징 도착 → 오후 6시 30분께 북중 정상회담.
- 26일 오전 10시께 베이징 중관촌의 IT관련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인 선저우 수마 등 시 찰 → 오후 3시 17분 베이징역 출발.
- 27일 오전 1시 선양 통과 5시 30분 당둥 도착, 중국측 환송행사 참석 → 오전 7시 30분 단둥 출발. 신의주로 들어감.

김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이번 방중은 식량원조를 포함한 중국의 지원 확보, 북중경협 활성화, 6자회담 재개와 비핵화, 후계체제 인정 등의 목표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연합뉴스」는 분석(「연합뉴스」, 5.27).

남북경협

통일부, 5.24 조치 이후 종교인 방북 첫 승인

4월 26일 「연합뉴스」는 통일부가 대북 취약계층 지원 협의를 위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관계자들의 개성지역 방북을 승인했다고 보도.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에 따라 원칙적으로 방북은 금지하고 있지만, 5.24조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대북 순수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방북을 허용했다” 밝혔다고 전함.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나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인원 외에 우리 측 인사들이 북측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북측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처음으로, 이에 따라 김남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관계자 3명은 27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조선종교인평화회의 측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분배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4.26).

북,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신설하여 독자적으로 주권행사

4월 29일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이 금강산 지구에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보도. 같은 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령을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로 지난 2002년 현대그룹과 합의 아래 만들었던 ‘조선주의인민공화국 금강산관광지구를 내움에 대하여’는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4.29).

북, 춘궁기 맞아 한국 민간단체들에 식량 지원 요청

5월 4일 「미국의소리(VOA)」는 춘궁기를 맞아 북한이 한국의 민간단체들에게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 대북 지원사업을 하는 한국 내 한 종교단체 관계자에 의하면

4일 북한이 지난 달 초 중국을 통해 밀가루를 비롯한 식량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북 지원단체들은 춘궁기를 맞아 북한의 식량난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방북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함. 대북 지원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전용 가능성이 낮은 물품 위주로만 선별적으로 반출을 허용하는데다 지원 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방북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지원이 여의치 않다고 밝힌 것과 한국 정부가 지난 3월 31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재개한 이후 현재까지 3건의 방북과 9건의 물자 반출이 이뤄졌다는 것을 「미국의소리(VOA)」는 덧붙임(「미국의소리(VOA)」, 5.4).

개성공단 체류인원 600명대로 확대

5월 8일 「연합뉴스」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하루 평균 체류인원이 기존 하루 500명선에서 4월 18일째부터 600명대로 늘어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 통일부 당국자는 “4월 중순부터 생산활동과 관련한 인원에 대해 기존보다 탄력적으로 체류를 승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류인원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보류했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순수 인도적 지원을 3월 말 재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다소 수그러든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연합뉴스」는 전망.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기존 1천여명에서 지난해 천안함 폭침 이후 5.24조치에 따라 500여명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9월부터 800~900명까지 확대됐다가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라 다시 체류인원이 최저 200명대까지 줄었고 이후 조금씩 늘기 시작해 4월 초까지 500명선에서 유지된 경과도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5.8).

북, 한국 상품 수입 단속 대폭 강화

5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최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남한 상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그렇지만, 남한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변경상인들은 ‘지나가는 소나기’ 라면서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남한 상품을 북한으로 들여가기 위한 다양한 편법들을 북한 세관원들이 모를 리 없지만 뇌물을 받은 세관원들에 명분을 제공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상인들의 설명과 남한상품 도매상들이나 남한제품을 구매하는 북한상인들이 모두

“북한에서 한국제품을 애용하는 소비계층과 한국제품 유통을 단속하는 집단이 모두 지배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한상품 단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고 말한 것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자유아시아방송(RFA)」, 5.9).

통일부, 북한 취약계층 지원 5건 추가 허용

5월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통일부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5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추가로 허용했다고 보도. 이날 승인받은 물자는 한국 돈으로 총 8억3천만원, 미화로 환산하면 약 80만달러 상당의 금액이며, 지원 물품은 이르면 이달 중에 북한에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한편, 최근 설문 조사에서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5.9).

‘남북 백두산 토론회’ 북한측 묵묵부답으로 무산

5월 11일 「미국의소리(VOA)」는 지난달 말 한국 정부가 11일에 열자고 북측에 제의했던 백두산 화산 학술토론회가 결국 무산됐다고 보도. 북한이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이런 태도는 그동안 한국 측에 보여왔던 대화공세에 비해 이례적이며 백두산 화산 문제를 남북간 협의 대상으로 먼저 제안한 것은 북한이라고 전함. 북한은 또 지난달 말 동해 표기에 대한 공동 대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역사학자들의 모임을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에 제의해 놓곤 접촉 방식이나 일정 등에 대해 아무런 추가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전함. 북한의 대화공세가 한 풀 꺾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풀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 시간을 두고 그 의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함.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북한이 대화를 완전히 접었다고 보기엔 이르다면서 한국 정부의 기존원칙을 재차 확인한 상황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장고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미국의소리(VOA)」는 덧붙임(「미국의소리(VOA)」, 5.11).

말라리아 남북 공동 방역사업 5월중 실시

5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해마다 말라리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북한과 접한 경기 북부지역은 올해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남북이 공동방역을 실시한다고 보도. 보건당국이 매년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 지역에서 말라리아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 환자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서 온 모기로 인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경기지역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07년 1천7명에서 2008년 49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가 2009년 611명, 2010년 818명 등 증가 추세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함. 통일부는 지난해 5.24 대북조치 이후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만 허용하고 있지만, 말라리아 문제는 한국 국민의 보건과도 관계있는 만큼 예외적으로 물자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덧붙임(「자유아시아방송(RFA)」, 5.17).

통일부, “북한, 책임 있는 조치 없으면 5.24조치 지속”

5월 17일 「미국의소리(VOA)」는 통일부가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으면 대북 제재인 5.24조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오는 24일로 1년을 맞는 5.24조치에 대해 종착역이 어딘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며, 2009년 남북교역과 위탁가공 반입액을 기준으로 5.24조치에 따라 북한으로 연간 2억5천만달러에서 3억달러 정도의 현금 유입이 차단될 것으로 추산했고, 지난 해 남북교역과 위탁가공의 교역액은 각각 54%와 22% 줄어들었으며 전체 대북 지원도 3백32억원으로 50% 줄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함. 5월 9일 「미국의소리(VOA)」는 유럽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현지시각으로 8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이 반드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해야 잘못을 또 안 한다” 고 말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대화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는 전함(「미국의소리(VOA)」, 5.17).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탈북자 대북 송금 승인 대상”

5월 23일 「미국의소리(VOA)」는 탈북자들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을 포함해 앞으로 한국에서 북한으로 돈을 보내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통일부가 24일 입법예고를 발표한다고 보도.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자나 이산가족의 북측 가족에 대한 송금이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만 북측 가족의 생계유지비나 의료비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하나, 한국 국민이 제3국에서 물품을 구입해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미국의소리(VOA)」는 덧붙임(「미국의소리(VOA)」, 5.23).

자료정리 : 라미나

-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